

목포 ‘멜라콩 다리’를 아시나요

60년대 의인 ‘멜라콩’ 박길수 선생
목포역 인근에 만든 다리
선행 기념비 등 버려진 채 방치
시민운동가 복원·보전대책 요구

목포의 시민운동가 손영덕 씨가 목포의 근현대사 상징인 ‘멜라콩 다리’의 복원과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시민이 세운 선행의 다리가 전봇대 밑에 처박혀 있는 현실은 부끄럽고 답답하다”라며 “목포시가 즉각 보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씨는 “어릴 적 어른들은 목포의 3대 기인으로 역전의 춘자, 평화극장 외팔이 기도, 그리고 멜라콩을 꼽았다”라며 “멜라콩은 선천적 소아마비로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평생을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을 돌본 의인이었다”라고 회고했다.

‘멜라콩’이라 불린 박길수(1928~1994) 선생은 목포역에서 10대 시절부터 소화물 잡역부로 48년간 일했다. 선천적 장애와 안면 기형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가솔 청소녀와 부랑자, 떠돌이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먹이고 재우는 등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1960년대 당시 목포역 인근에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천이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박 선생은 자신의 돈 60만원을 들여 직접 다리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금운동에 나섰고, 1964년 4월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다. 시민들은 그의 선행을 기려 다리를 ‘멜라콩다리’라 부르고 기념비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그 기념비는 전봇대 아래 담벼락에 박힌 채 페인트에 덮여 방치되어 있다.

손 씨는 “목포가 근현대사 거리를 내세워 관광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시민의 손으로 세



전봇대 아래 방치된 ‘멜라콩 다리’ 기념비에는 ‘목포시 정모(집권) 박길수’라고 새겨져 있다. 부도난 호텔(옛 남일극장) 인근 도로를 횡단하는 도보다리를 박 선생이 앞장서서 세웠다.

운 의인의 흔적은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역사 테러이자 선행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길수 선생은 조롱과 차별을 공동체 정신과 선행으로 갚은 사람”이라며 “목포시민의 상까지 받은 의인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손 씨는 목포시와 시의회에 즉각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공감하는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인물의 정신을 목포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며 “지금 학교 선생님들 중에 멜라콩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목포= 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영광서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대회’ 열린다

12일 영광스포티움 축구장

영광군이 오는 12일 영광스포티움 축구장에서 ‘2025 천년의 빛 영광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영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광군게이트

볼협회가 주관하며 전남 22개 시·군의 게이트볼 동호인 32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행사로 기술과 팀워크를 겨룬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는 6인 1조(남·여) 총 4개 코트에서 A·B 파트로 나누어 예선 리그전을 진행한 뒤, 각 코트별 파트의 1·2위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전남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해남군 “농업의 달인 찾습니다”…고품질 쌀 등 5개 부문 공모

17일까지 농업인 대상 후보 접수

해남군이 ‘2025년 해남군 농업인 대상’ 후보자를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남군은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를 비롯한 농업경쟁력 확보와 수출진흥 등에 공헌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매년 발굴,

농업인 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선발 부문은 고품질 쌀 생산과 원예특작, 농산물유통·가공, 축산, 임업의 5개 부문으로 1명씩 총 5명을 선정한다.

해남군에 거주하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 경영 상황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상자는 서류심사,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되며, 12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해남군 농업인 대상은 2001년부터 총 104명이 수상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군, 황금빛 굴참나무 ‘신안 천사’ 품종보호권 획득

자은면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
2년간 재배심사 거쳐 신품종 등록

신안군은 자은면에서 발견된 굴참나무 변이종 ‘신안 천사(Shinan Cheonsa)’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로부터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안 천사(Shinan Cheonsa)’는 기존 굴참나무와 달리 녹색 잎에 노란색 무늬가 있는 변이종으로, 햇빛이 강렬한 날에는 황금색과 유사한 빛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자은도 무지엄파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을 위해 우수 개체 350주를 식재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점목을 통한 자체 증식으로 같은 형질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최초 발견된 신안군의 브랜드명을 활용한 ‘신안 천사(Shinan Cheonsa)’라는 이름으로 출원했다.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신품종으로 등록돼 25년간 독점적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 천사(Shinan Cheonsa) 굴참나무 대량 증식을 통한 수목자원을 확보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연계한 소득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신안 천사’ 굴참나무 묘목.

전통 장작가마서 따뜻한 불멍 즐겨요

영암도기박물관 소성 체험

7~9일 소원장작 쓰기·도기 할인

영암도기박물관이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연계해 전통 장작가마<사진> 도기 굽기 체험인 소성 행사를 실시한다.

7~9일 장작가마 영암요에서 여는 행사는 장작가마의 불길 속에서 도기가 완성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다.

관람객은 무료 현장 신청을 통해 소성 과정을 볼 수 있다. 장작에 소원을 적어 불길 속에 놓으며 염원을 비는 ‘소원장작 쓰기’, 밤에 장작불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불멍’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성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멍은 밤 9시까지 즐길 수 있다.

영암도기박물관 내 판매장에서는 1~16일 한옥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생활도기를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장작가마의 따뜻한 속에서 소원을 빌고 생활도기도 특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전국 동시 접수

10~28일…내년 일반·장애인 이용권

목포시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동시 접수한다.

매년 시행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된 대상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1만5000원 상당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지급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의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 매월 11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원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접수가 진행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 이번 신청에서 미신청된 경우라도 향후 선정 인원 변동에 따라 연중 수시 접수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스포츠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는 기회가 더 많은 시민에게 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행복복지재단 10년간 61억 모금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

군민 11만 2000여명 혜택

완도군행복복지재단(이사장 박신희)이 최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10년의 비전을 밝혔다.

‘함께 나는 10년, 희망찬 군민 행복’을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해 도·군의원, 후원자, 기관·사회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2015년 10월 출범한 재단은 기본 자산 60억원(출연금 50억원, 잉여금 10억원)을 바탕으로 복지 기금 조성과 지원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모금액은 61억 6000만 원에 이르며 11만 2000여 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았다.

재단은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복지 기금 확충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복지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비전 선포식 행사에서 박신희 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은 군민의 나눔과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재단은 군민 복지 향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행정과 재단이 함께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24일부터 12월4일까지 신청

진도군이 해양수산업의 활성화와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2026년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주요 사업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과 수산 종자산업 육성, 육상양식장 해수직수 시설지원 등 총 17종(국비 7종, 도비 8종, 군비 2종)으로 11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12월4일까지이다. 공고문은 진도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진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로, 지방세 체납 등 각 사업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단체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